존 힐(John Hill) 선교사가 태평양 전쟁 때
군목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소재 수용소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선교사들의 참상

-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늦지 않게 찾아오십니다(He's still on time/in His perfect time. 요 11:35-44).
- 힐 요한(John J. Hill) 선교사는 만 26세 때인 1939년 6월 21일 서울에 도착해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으나 태평양전쟁의 징후로 1940년 11월 16일 급히 미국으로 철수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힐은 목회를 하던 중 1944년 10월 5일 군목학교에 입학하여 5주간의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되었습니다.
- 힐이 탄 군함이 1945년 4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였습니다.

- 도시는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파괴되었고, 끔찍한 잔학행위가 자행되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산 채로 불태워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총검에 찢겨서 신체가 벌어진 채였습니다.
- 힐은 규모가 큰 수용소(로스바뇨스 Los Baños/필리핀 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수용소, 산토 토마스 대학교 캠퍼스 수용소의 과밀로 1943년 5월부터 수용소로 이용, 수용소에서 사망한 레슬리 울프 선교사의 경우 이 두 수용소 모두에 수감됨)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힐은 일본군에 잡혀서 수감된 후 기아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 선교사들을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 그들은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의 사모, 윌리스 헤일(J. Willis Hale) 부부, 레이 칼슨(Ray Carlson) 부부와 자녀들, 에디스 쉼멜(Edith Shimmel)과 에델 존스(Ethel Jones)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척하였지만, 해방당시 그들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 에디스 쉼멜(Edith Shimmel)과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에서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 부인 에밀리 보이드(Emily Boyd Cunningham) 여사와 함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을 순방하였습니다. 1941년 4월 1일 새로운 종교법의 시행으로 일본과 조선에서의 선교가 모두 막히자 필리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필리핀까지 점령하여 1942년 4월부터 44년 7월까지 주요 선교사들은 산토 토마스 대학교 캠퍼스 수용소에, 나머지는 가택 연금하였고, 이후 미군의 반격이 임박하자 로스바뇨스 수용소에 수감하였습니다.
- 에디스 쉼멜은 1950년에 필리핀 선교 동역자였던 에델 존스와 함께 하와이로 건너가 오아후섬에 마일리 크리스천 교회(Maili Christian Church)를 개척하였습니다.



서울 제2교회 성경공부반(이인범이 매일 2시간씩 강의, 1937년)
뒷줄 좌측부터 커닝햄 부인, 이난기 담임목사, 이인범 목사, 쉼멜 양



인천금곡동기독교회 유년주일학교(1937년 4월 11일)
중앙의 두 외국인은 커닝햄 부인과 쉼멜 양, 우측이 정삼선 전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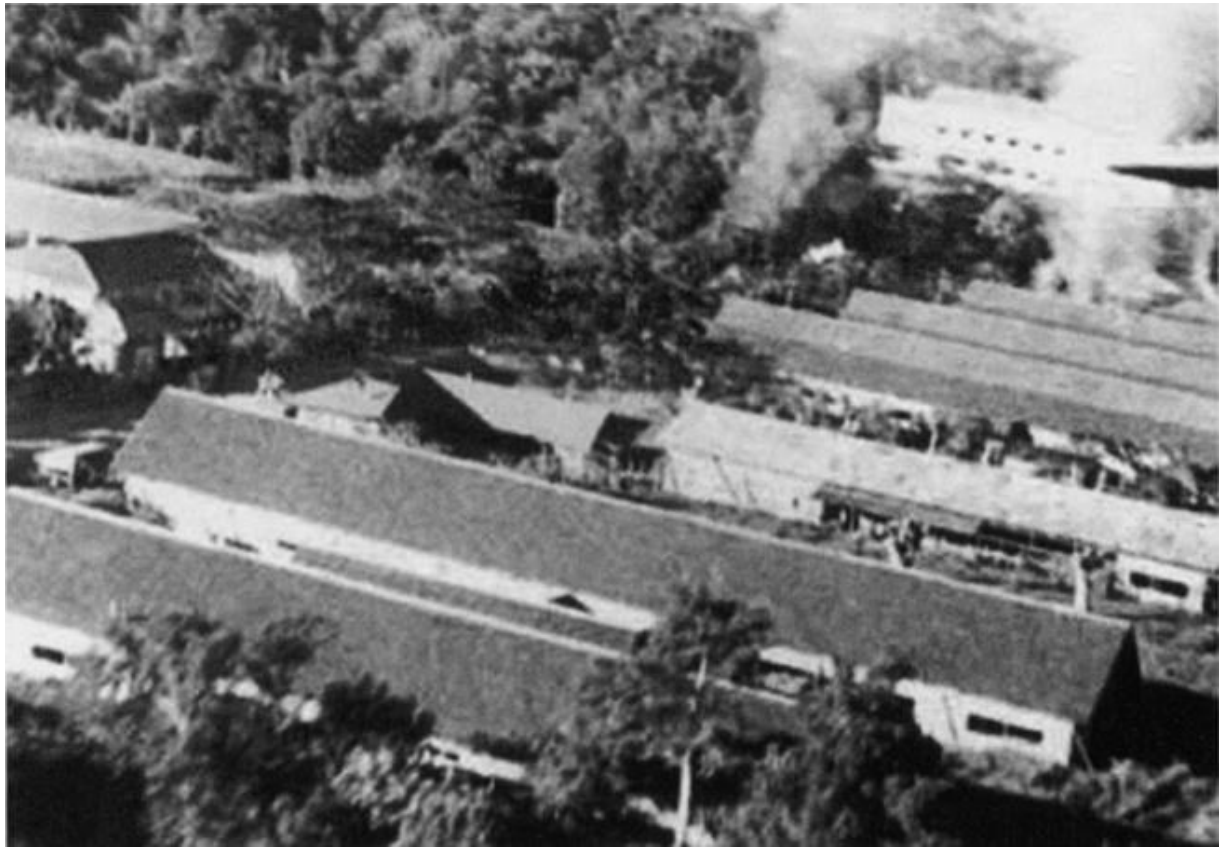
산토 토마스 대학교 수용소(1942.1-45.2)
3-4천명의 외국인들이 기숙사와 캠퍼스에 억류됨
수용자들이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고통 당함





산토 토마스 대학교 본관(1611년 4월 28일 설립)
본관 앞에서 석방을 환호하는 모습(1945년 2월 5일)





로스 바뇨스(Los Baños) 필리핀 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수용소의 관리 소무소였던 베이커 홀(Baker Hall)과 수용소 시설

- 힐은 그리스도의교회들의 필리핀 선교의 개척자 레슬리 울프가 대략 두 주일 전에 사망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사 울프는 수감생활로 인한 극심한 영양결핍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 힐 중위는 군용비상식량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까지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남아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었던 헌신적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 산토 토마스 수용소는 1945년 2월 3일, 로스 바뇨스 수용소는 23일에 각각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연합국 국적의 민간인 수용자들은 해방 후에도 시가전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본국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수용소에 머물려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용시설은 그해 9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 미군들이 로스 바뇨스 수용소(Los Baños Internment Camp)를 기습하여 선교사들 및 그들의 가족들을 구출한 날은 일본군들이 수감자들을 기관총으로 몰살하기로 계획하고 그 실행날짜를 단 하루 남긴 날이었습니다.
- 당시 일본군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수용소의 연합군 민간인과 포로들을 전원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본군이 대규모 학살(총살)을 집행하기로 예정했던 날짜를 불과 하루 앞둔 1945년 2월 23일 새벽, 미군과 필리핀 게릴라 연합군이 기습 작전을 감행하여 이들을 구출해냈습니다.

- 단 하루 차이로 그들은 하나님이 늦지 않게 그들에게 보낸 미군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4일 늦게”(Four Days Late) 및 “그분의 완벽한 때”(In His Perfect Tim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늦지 않게 찾아오십니다.
-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